

정론

위대한 당이 우리를 향도한다 더 높이 내려쳐오를 강성대국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내다보며

65성장!

한없이 영광스럽고 승업한 격정이 우리의 심장을 틀어잡는다.
저 멀리 험한 명을 넘고 넘어 역사의 온갖 시련도 다 막아내고 창조와 기적의 위대한 승리도 안아온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

65년의 긍지높은 체첩자, 자랑스러운 승리자들이 10월의 하늘가에 류달리 붉게 타는 성스러운 당기를 우러르며 위대한 향도자, 은혜로운 어머니-우리 당에 영광, 영광을 드린다. 감사, 감사를 드린다.

두 세기를 이으며 등대와도 같이 시대를 밝히고 혁명의 기관차가 되어 조선을 이끌고 우리 운명을 빛내준 65년의 총화가 우리에게 새겨주는 것은 무엇인가. 주체혁명사로 기록될 민족사적인 대사변과 승리들로 가득찬 역사의 분수령에서 새로운 전환의 큰 결실을 내디디는 향도의 당을 따라 또다시 승리해갈 우리의 신심과 탄원은 어떻게 승리를 향도하는가. 위대한 당이 우리를 향도한다!
백승의 당, 향도의 당이 있어 천만민 미레가 환히 보인다!
이것이 10월의 언덕에서 우리 당의 창건자, 영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최대의 경이이며 신공주의의 포성으로 21세기를 조선의 세기로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심과 열화같은 맹세의 분출이다.

1

위대한 김일성조선의 영광과 찬란한 미래를 안은 격동의 날들이 흐르고있다. 온 나라를 크나큰 감격에 휩싸이게 하고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9월의 역사적인 사변으로부터 백야호루 10월의 광장에 승리의 환호성이 진감하게 될 가슴벅찬 이 시각,
우리의 총칭한 당원들과 천만군민은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 그 성스러운 부름을 다시금 가슴에 안아보며 불멸의 역사와 크나큰 업적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노래를 높이 부른다.
얼마나 거창한 승리의 역사가 흥얼거나,
침략자 미제를 타승한 전승의 하늘가에 터져오르는 축포를 바라보며 우리 인민은 그 부름으로 당을 칭송하였고 14년 만에 사회주의공명화를 완수한 빛나는 기적을 놓고서도 로동당탄생을 소리높이 웅했다.

속도전의 기상안고 조국이 힘있게 나래 쳐오르던 그 긍지높은 년대에도, 80년 대속도창조의 열풍속에서 사회주의대건설의 교향악이 장쾌하게 울리던 격동기에도 우리 인민은 당을 불러 승리를 노래하였다.
천만군민이 피눈물의 언덕에서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며 용감 일어설수 있었던 것도, 허리머를 조이며 고난의 천리를 헤쳐 락원의 만리길에 기어코 들어설수 있었던 것도 당의 령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 나라의 친구도 많지 않고 영토도 크지 않다. 하지만 령사가 넓지 않지 못 하는 가장 격렬하고 침예한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의 개가를 높이 울리며 불멸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 전변된 이 세기의 기적을 누가 알아왔는가.
투쟁과 전진의 전투에는 향도의 손길을 높이 든 우리 당이 서있었다. 당기발이 펼쳐 휘날리는 곳에는 승리의 함성이 터져올랐다.
조직자, 향도자가 없는 혁명의 승리란 있을수 없다.
승리를 위해 향도가 있고 향도를 위해 당이 있다.

세상을 둘러보면 탄생과 조락, 성공과 실패, 전진과 좌절이 뒤섞여있어 갖가지 흥망성쇠속에서 매개 당들의 진가가 명백히 검증되었나.
오직 변함없이 한길을 걸어오고 문자 그대로 백전백승이라는 이름으로 칭송할수 있는 당은 이 지구상에 조선로동당밖에 없다.
어비수령님 따라 승리만을 펼쳐온 혁명의 길을 위대한 장군님 따라 끝까지 이어갈 맹세를 안고 천백배로 풍치어나섰던 우리는 더욱더 빛나는 승리의 총화를 안고 수령님앞에 몇몇이 설수 있게 되었다.
당이며, 조선로동당이며!
그대는 우선으로 하여 폭풍사나운 혁명의 년대들을 단 한번의 주저와 동요도 없이 조국과 인민을 이끌어 승리, 승리만을 향하여 달려왔는가.
흘러온 20세기를 자랑스럽게 추억하고 21세기를 내다보는 격동적인 시각 주체혁명위업의 영원한 승리를 확신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리시었던 선언이 심장을 세차게 두드린다.
우리가 가는 길은 수령님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길이며 주체의 길은 백전백승의 길이다!
우리 당이 헤쳐온 65년.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 열어주신 주체의 길을 따라 승승장구하여온 영광의 길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삼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당은 가장 공고한 기초와 독특한 발전력사, 위대한 업적과 고귀한 경험을 가진 백전백승하는 당으로 될수 있었다.》
세기의 어느 당도 걸어보지 못하고 어느 인민도 체험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년대들이었다.
일체의 착취로 폐허만이 남은 그런 불모의 대지에서 출발한 당이 있었으며 3년간의 전쟁으로 재가루만 날리는 속에서 다시 일어셔야 하는 시련을 겪은 인민이 또 어디 있는가.
미제와 항시적으로 총구를 맞대고있는 존엄한 정세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지키는 나날에 우리 당이 겪은 시련은 또 얼마였는가.
그 하나하나가 남들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특색있는 과제였지만 우리 당은 단 한번의 좌절이나 답보도 없이 오직 승리와 영광의 대안으로 조국과 인민을 이끌어왔다.

주체! 이것이 우리 당이 존엄한 난국마다 더 힘있게 틀어쥐고 더 높이 추켜든 기치였다.
수학에는 공식이 있지만 혁명을 하는데는 그 어떤 고정불변한 공식이란 있을수 없다. 혁명을 하는데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공식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것이다. 우리는 오랜 기간의 혁명 투쟁과정에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되였다고 하지만 어비수령님의 그 뜻깊은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안겨온다.
우리 혁명의 공식은 오직 하나 주체였다.
갓 해방된 공작에서의 건군, 건국사업이 그였고 전후의 재대미우에서 사회주의 천리마를 떼출린 투쟁이 그랬다.
우리 당은 1950년대에는 그 어느 당도 내놓지 못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1960년대에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며 대한 자위의 로선을 내놓았으며 1970년대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라는 거창한 사회혁명을 승리로 이끌었다. 경제건설의 일대 양양기를 수놓은 1980년대에도 이어 1990년대에는 비겁하고 나약한 당과 인민은 상상할수 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실천적으로 이끌었고 21세기에는 사회주의강성대국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일대 통성변영의 새시대를 펼쳐놓았다.
최고의 주체는 선군에 있다.
인공지구위성이 어떻게 편이 내 나라의 푸른 하늘로 박차올랐으며 누구도 두려워할수 없는 핵보유국의 존엄과 위용은 어떻게 펼쳐지게 되었는가. 야강간에서 끝무로 호미나 버리던 민족이 CNC강국의 긍지높이 최첨단들과의 열풍을 일으켜가는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으며 자립의 위용속에 주체철과 주체비료는 또 어떻게 쏟아져나오게 되었는가.
이 나라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민에게 천만가지 행복이 꽃피는 무궁도원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폭풍사나운 선군혁명의 천리마를 헤쳐온 우리 당이다.
모진 고생과 피로움을 각오해야 하고 원수들의 끊임없는 방해책동과 첩첩히 막아나서는 간고한 시련의 고비를 넘어서야 하는 길은 인민을 기민하여 집권육이 나 채우고 리기만을 일삼는 당들은 엄두조차 낼수 없는 길이다.
하다면 우리 당은 어쩌면 누구나 갈수 없는 이런 힘겹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였으며 그 길을 단 한걸음의 주저나 한순간의 동요도 없이 끝까지 이어갈수 있었는가.
위대한 사명감,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아 하는 성스러운 본분때문이었다.
사람도 인민의 대지우에 행복의 꽃바다를 펼쳐주는 가장 따스한 태양의 빛과 열로 내뿜고 분노도 인민의 존엄과 리의를 침해하는 온갖 원수들을 용서치 않는 무자비한 징벌의 우리로 터지며 행복과 미래도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완전무결한 인민의 세상으로 안아오는 당,
마지와 닦과 붓을 그 붉은 기록에 뜨겁게 품어안은 우리의 로동당만이 선택할수 있는 승리의 길이었다.
누구도 범접 못하는 맑고 푸른 하늘을 머리 에 이고 사회주의 큰 지붕아래 오희파와 무르익는 락원으로 솟아오른 우리 조국,
이렇듯 아름답고 위대한 나라, 인민의 충성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고 빛내여가는 우리 당, 기적도 위대한 기적, 승리도 신군의 위대한 승리만을 펼치고 력사도 주체의 위대한 새 력사만을 창조해나가는 우리 당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으랴.
우리 인민에게는 당과 함께 걸어온 65년의 고귀한 체험으로부터 자기의 향도자, 백전백승의 당을 노래하는 자기식의 철학이 있고 뜨거운 심장의 연어가 있다.
어머니당!
그렇다. 이 땅 천만사람들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인민의 운명을 대를 이어 지켜주고 꽃피워주는 위대한 어머니, 장장 65성장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안고 기쁨도 슬픔도 시련도 행복도 여겨온 혁명의 어머니가 바로 우리 당이다.
백전백승의 65성장, 이는 위대한 어머니당만이 쟁취할수 있는 고귀한 전취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의 백전백승의 력사를 돌이켜보시는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당이 어머니당으로 건설되어 무궁무진한 위력을 지니게 된것은 지나온 투쟁력사의 빛나는 총화라고 긍지높이 선언하시였다.

2

위대한 당은 위대한 수령의 당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시어 어머니당으로 불러우는 긍지높은 당이다.
조선로동당 만세!
이 땅에 메아리치는 드높은 함성은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고 영도자이시며 인민의 어비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 만세, 위대한 김정일동지 만세의 우렁찬 환호이다.
하나의 가슴치는 화폭앞에 우리가 서있다.
지난해 력사의 땅 락원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첫 산소분리기를 만들던 1980년대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되돌아보시며 수령님께서서는 락원의 10명 당원을 키우시었는데 자신께서는 락원의 8명 당원을 키워왔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키우신 락원의 8명 당원!
당이 안겨준 무한한 힘과 활력을 안고 대항산소분리기제작에서 또다시 영웅적 위훈을 세운 락원의 8명 당원들에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가슴뜨거운 사연이 있다.
용기들을 내라고, 등무들을 밟겠다고 하시며 많은 로동자, 기술자들을 한꺼번에 당에 받아들이도록 대용단을 내리시고 떠나시던 결음을 되돌려 다시 일군들과 마주앉아 구체적인 조치까지 다 위해주신 2009년전 10월 22일, 그날은 락원이 두번다시 태어난 날, 오늘날의 8명 당원들의 출생일로 우리 당력사의 한갈피에 빛나게 기록되게 되었다.
우리 수령님 키우신 락원의 10명 당원과 우리 장군님 품에서 새로운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두번다시 태어난 락원의 8명 당원.
여기에는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위대한 계승의 력사가 있다. 당의 품에 영원히 운명의 피를주고 있고 천만민 그 품에 깊이 살려는 우리 인민의 남다른 체면과 신념의 세계가 비쳐있다.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당은 어머니여야 한다.

세련되고 로숙한 당,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 불멸의 업적을 이룩한 당...
65성장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끄는 나날에 우리 당이 받아안은 호칭은 많지만 김일성동지의 당의 본질을 집약하고 위대성의 근본부리를 안고있는 가장 값있는 호칭은 바로 위대한 어머니당이라는 것이었다.

돌이켜보면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인민의 운명에 대한 비상한 책임감을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우리 수령님에 의하여 창건된 조선로동당은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어머니당의 탄생이기도 하였다.
지금도 우리 귀진에는 해방조국의 첫 기슭에서 우리 당이 걸어갈 천만리를 내다보시며 수령님께서 하신 뜻깊은 말씀이 생생히 울려온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을 령도할 무거운 책임을 지고있으며 우리 당의 활동영역에 따라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좌우된다. 우리 당을 어떠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조선인민의 운명을 걸머지고 힘있게 전진할수 있는 강력한 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절절히 이르시던 우리 수령님.
당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
우리 당의 모든 위대성과 현명성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줄기뻗었으며 인민을 위해 쌓아올린 천만업적의 밑바탕에도 어머니당이라는 이 고귀한 부름이 생명의 뿌리마냥 자리잡고있다.
위대한 당의 계승은 위대한 어머니당의 계승이다.

조선로동당의 총비서이신 김정일동지! 아득한 밀림속광야, 흰눈덮인 쿨베집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그이신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빛내실 엄숙한 사명감을 지니고 탄생하신 인민의 아들이시였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당에서 책임지고 키워주고 보살펴주고 내세워주며 죽어서도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주어 영원한 삶을 빛내어주는것이 우리 당, 조선로동당의 정책이며 곧 나의 인간철학의 핵심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열정에 넘쳐 피력하신 우리 당정책, 자신의 인간철학에 대한 뜻깊은 정의,

당의 사상과 리념은 영도자의 정치철학을 닮는다.
오늘 우리 인민이 기쁨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목매어 부르는 《김정일장군의 노래》에는 우리 장군님은 인민의 영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이시라는 구절이 있다.
인민의 영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
이보다 더 힘있고 존엄높은 어머니당의 모습이 어디에 있을것인가.
신군의 기치높이 조국의 존엄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지키고 인민의 행복이 끝없이 꽃피는 사회주의 우리 세상을 빛내여주는 이런 위대한 당, 이런 불멸의 당, 이런 고마운 당이 이 세상 그 어디에 있으랴.
당은 곧 우리 장군님의 품이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이해의 10월 우리 조국밖은 그 어머니 인민의 어비이 우리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짙 차있다.

평양폭산공장을 찾으시였던 그날 CNC화된 생산공정에서 사랑폭과, 파자폭과가 쏟아지는 광경을 바라보시며 함격이요, 함격! 라고 기쁨을 터치시던 그 환상적인 모습, 굽이굽이 령을 넘어 현대화의 표본 광산으로 일떠선 3월 5일청년광산을 찾으시여서는 생산공정이 현대화되었을뿐 아니라 강성대국리산촌까지 펼친 최한한 전경을 보고 또 보시며 여기는 만점이 아니라 백만점이라고 만족해하시던 그 모습, 무심히 보지 마라.
로동당시대에 천지개벽하여 기쁨진 땅을 적시며 흘러드는 맑은 물, 어디서나 일떠서는 산악봉은 연체의 용운한 모습, 온 나라에 휘몰아치는 최첨단들과의 바람, 로동당시대의 자랑으로 솟아오른 선군선경들, 인민을 위해 세워있던 일떠서는 만년대계의 창조물들.

혁명이 아무리 간고하여도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붉은기를 끝까지 지키며 투쟁의 길이 아무리 생소하고 험준하여도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인민의 총대를 더 높이 추켜드는 우리 당,
그래서 자신의 한생을 켜어짜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남는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장군님이다.

또 하나의 사랑의 전설이 이 땅에 전해지고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나날에도 북방의 인민들에게 파일을 마음껏 먹이지 못한 무거운 심중을 안으시고 사업수첩의 끝피에 《자강도 복속...》라는 친필을 남기신 우리 수령님 한평생의 가슴치는 사연을 생각해 내지 않으시고 맞닿은 파일이 생기면 자강도인민들부터 생략하시는 우리 장군님.
이해에도 자력에서 몹소 키우신 사과나무들에 빨간 사과들이 한달두달 주렁질 때 장군님 마음속에 먼저 떠오른것은 자강도인민들이었다. 자신께서 아직 한알도 맛보지 않았고 그 사연있는 열매를 자강도인민들에게 통채로 보내주신 우리 장군님 사랑이 일터마다 가닿을 때 온 주변지구사람들이 화려한 명절옷을 펼쳐 입고 나와 덩실덩실 노래춤판을 펼쳐놓았던 그 시각,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한동안 기대앞에 설수 없었던 존엄원들과 그 자녀들까지 사랑의 선물이 전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온 자강도가 눈물바다로 되었다.
당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민에게는 그에 대한 명백한 대답이 있다.

오늘 강성대국의 찬란한 미래가 더 아름답게 꽃피는 선군의 이 땅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누구나 사랑하며 즐겨 읊는 시 《어머니》
위대하고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을 우러러 어머니로 칭송한 이 시는 당에 운명도 미래도 전적으로 맡기고 영원히 그 품에 깊이 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진실한 체험의 토로이며 드림없는 신념의 분출인것이다.
이 세상 모든 말이 어머니라는 그 하나의 부름을 대신할수 없듯이 위대한 어머니당이라는 이 부름보다 우리 당을 더 뜨겁고 진실하며 열렬하게 칭송할 부름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알지 못한다.
위대하여라, 조선로동당이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대를 이어 백전백승의 한길로만 줄달음쳐온 그대의 긍지높은 력사우에 또다시 밝아오는 영광의 천리마를 내다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터치는 심장의 웨침이 10월의 하늘가를 진동한다.

당이며, 어머니이시여,
그 품 떠나 우리는 못할아!
3
향도의 기치따라 조선은 신심드높이 나아간다.
당의 부름에 산악같이 일어난 천만군민의 거세한 진격의 흐름을 보시며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말씀하시였다.
바로 이것이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선의 참모습들이!

승리와 영광의 65년을 천년, 만년으로 즐기차게 이어가야 할 이 력사의 분수령에서 우리 당은 단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든다.
단결이자 승리이다.
노래에도 있듯이 천만사람이 말을 해도 한목소리, 천만대오 걸어가도 한결같은 일심단결, 세찬 폭풍 몰아쳐도 흔들림 없고 우리 세대 바피어오 변함이 없을 강위력한 혼연일체,
조선은 이 백승의 무기로 미래를 확신있게 내다본다.
21세기의 자주사상인 선군사상과 함께 우리 당의 단결의 사상은 주체혁명의 줄기찬 전진과 최후승리에 대한 가장 힘있는 정의를 내리고있다.
나라와 민족들의 운명은 결코 광활한 영토나 영도의 제부가 결정하지 않는다. 그 결정적인 요인은 곧 당의 위대성이며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불멸의 일심통일체이다.
단결로 개척되고 단결로 승리하여온 우리 당의 전통이 력사에 뚜렷이 부각되고있다.

피끓는 열혈청춘들이 위대한 한벌정신을 온 굳게 무쳐 높이 추켜들었던 《E. C》의 기차, 그 붉은 기록에 진화개 승배인 단결의 정신을 당기발에 새기며 통일단결의 년대기를 수놓아온 조선혁명의 전 로정을 되새겨보라.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뭉쳐 력사의 존엄들을 넘고 헤치며 승리만을 거둔것이 우리 혁명이요 당중앙따라 혁명의 천만리를 더욱 신심드높이 내달리며 비약해온 우리 인민이다.

단결의 노래 높이 울리는 곳에 기적의 성공방이 치솟아오르고 단결의 기상 넘치는 곳에 승리의 함성이 터져올랐다.
위대한 수령님 따라 항일선렬들이 백두 밀밭에서 시작한 행군길, 당중앙의 불빛을 바라보며 혁명의 대를 이어온 그 길에 오늘날은 혁명의 3세, 4세대의 힘있는 자욱이 새겨지고있다.
단결의 전통이 곳곳이 이어지는 우리 혁명의 전진군은 갈수록 더욱 신심이 솟고 신뢰의 정이 더 불타오르며 보다 승리가 다가오고있는 영광넘치는 길이다.
혁명의 대는 단결의 대, 단결의 대는 승리의 대이다.

한없이 비범한 예지와 백승의 전략이 밀밭길과 천만심장을 한피줄로 이어주는 고결하고 뜨거운 사랑이 물결치며 오늘보다 더 광명하고 눈부신 천만년미래까지 안고있는 우리 당,
조선로동당은 전도양양한 당, 휘황찬란한 미래를 안은 당이다.
있을수 없는 9월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 민족사적인 대경사는 주체혁명의 만대의 명맥을 더 굳건히 잇고 위대한 김일성조선의 앞길에 펼치는 승리와 무궁한 번영을 펼쳐주었다.

65년의 영광의 력사를 자랑하는 우리 당은 새로운 활력과 필승의 의지로 하여 그 해이 천리만리로 펼쳐지고있는 온 나라 강산은 해초는 아침처럼 희망과 락관을 내뿜었다.
나라와 민족마다 당들은 있어도 인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운명을 빛내여주는 당이 어디에 있는가.
어는 있어도 매일이 없는맛에 혼잡과 무질서에 휘말려드는 이 소란한 세계에서 분발처럼 약동하고 청춘의 기상으로 활력이 넘친 매일을 가지고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긍지에 넘치는것인가.
우리 당의 양양한 전도, 약동하는 청춘은 백두의 기상을 한몸에 지니신 절세의 위인을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데 있다.
백전백승하는 조선로동당은 곧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는 영광찬란한 우리 당의 휘황한 미래이다.
당에 대한 열화의 사랑으로 자라나게 심장을 불태우시는분, 강성대국건설의 열망으로 강행군에서 또 끊임없는 강행군으로 이어지는 그 전설적인 령도의 자욱 따라 조선은 비약의 나래를 폈다.
지칠줄 모르는 왕성한 정력과 미래에 대한 락관에 넘치시는 우리 장군님께서 전투에 계시기에 인민을 향도하는 그 빛날 더욱 눈부시고 조국을 떠미는 그 힘이 백배해지며 인민의 운명을 꽃피우는 새로운 작전들이 끊임없이 구상되고있다.
향도의 당을 따라, 그 장엄한 발걸음 소리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기는 하늘에 닿았다.

우리에게는 향도의 당이 있다!
10월의 강산에 굽이치는 이 뜨거운 사상강정은 우리 신념의 기둥이고 억년드 놓지 않을 주추들이며 광명한 매일로 떠밀어주는 무한한 원동력이다.
향도의 당을 생각하면 절해도에서도 힘이 솟고 천만대적도 두렵지 않으며 불 속에도 웃으며 뛰어들수 있다. 우리에게 향도의 당이 있다는 이 신념만 있으면 창조적 발을 몇십발 지세워도 힘든줄모르며 그 어떤 불가능에도 도전하여 《무》의 전투장에도 용감 뛰어들수 있으며

최후승리의 시각까지 용감무쌍히 돌진하는 용맹의 나래가 뜬다.
평범한 나날에는 소박한 차림새로 별로 눈에 띄지 않아도 시련의 나날에는 돋보이는 그런 신념과 총정의 인간들이 그 열마인가.
지난 8월 자연의 광만이 빛어낸 무서운 큰물이 압록강변을 휩쓸던 그때, 범람하는 물결에 휘감긴 살림의 지붕에서 삶과 죽음의 계산에 서있던 사람들이 터진 희망의 웨침은 무엇이었는가.
우리에게는 당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비행기들이 사나운 비발속을 헤쳐가며 수해지역 상공으로 날아오르며 해군함정들이 물결을 거스르며 달려오던 모습앞에서, 집집의 문을 두드리며 마지막 한사람까지 찾자 위해 뛰어다니는 일군들을 목격하면서 그들이 다시금 절감한 생활의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당이 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어머니가 계신다는 믿음이었다.

그렇듯 위급한 정황에서 물기 한점 스며 들지 못하게 정히 싸고한 백두산위인들의 초상화부터 비행기로 올려보낸 인민들의 고결한 총정, 그것은 우리에게 운명의 위대한 보호자가 있다는 크나큰 믿음이며 영원히 그 품에 운명을 의탁하고 따를 천만아들딸들의 의지였다.
우리의 혼연일체는 당의 두리에 총대를 틀어잡은 군대가 서있고 천만인민이 그 두리에 성벽처럼 뭉친 가장 공고한 단결, 무엇보다도 깨뜨릴수 없는 일심통일체이다.
이 철통같은 통일체의 현맥은 총정이며 그 최고의 분출은 비발정사용위이다.
위대한 창건자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당의 영원한 백승을 위하여, 어비수령님의 리상이 꽃핀 강성대국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수령옹위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든다.

사명부의 안방을 바라며 적진을 맞받아 달려던 항일선렬들의 정신, 당과 조국을 위하여 불붙는 적화점에 가슴을 내던 진화의 영웅들의 불타는 눈빛, 혁명의 수뇌부를 위하여 영웅적최후의 길을 스스로 택한 결연조영웅의 심장의 웨침이 오늘날도 생생히 살아 우리를 부르고있다.
수령정사용위는 사상결단의 결정장에서만 울리는 구호가 아니다.
오늘의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수령옹위는 당이 준 과업을 결사관철하는 격렬한 투쟁속에서 선구자가 되고 투사가 되는것이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구호를 삶의 파우명으로 심장에 새기고 한몸의 완을 깨우쳐 목표의 목적을 가꾸어오 당을 생각하며 한몸내대는 이런 투사들, 선구자들이 단결의 굳건한 수호자들이다.
일신의 단결이 아니라 당의 부름을 먼저 생각하며 발전소건설장으로 달려나가고 험한 산골로, 동촌으로 주저없이 진출하는 청년들, 당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창조하고 자력갱생의 길, 최첨단들과의 길을 열어나가는 애국자들이 당의 동행자, 참된 혁명가들이다.

부모를 따르는 자식들처럼 어머니당에 피를주고 있고 한생토록 따르는 우리 인민의 삶의 화표는 오직 하나 우리 당이 가리키는 길이다.
더 높이 부르자, 노래 《조선의 모습》을!
조국변영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며 향도의 손길을 높이 추켜든 위대한 당이 있고 당이 가리키는 길이란만 마음도 결음도 슬겉도 같이하며 천만산악도 단숨에 넘고 사물치는 강물도 헤쳐 달려는 천만의 대오가 있는 한 승리는 영원히 우리 당과 인민의것이다.

이 세상에 지구를 깰 힘은 없다 해도 우리의 단결은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다.
위대한 향도의 손길이 펼치는 강성대국의 찬란한 미래가 우리를 부른다.
광휘로운 매일을 앞당기는 백전 발걸음으로 세계적인 기적과 변혁을 안아오며 김일성조선을 누리에 펼치는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은 인민은 최대의 영광, 영광을 드린다.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고갈 신념의 대오, 총정의 대오가 10월의 경축광장으로 보부당당히 들어서고있다.
투쟁과 전진의 65년을 강성대국의 무궁명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의 년대기들로 이어갈 계속혁명, 계속전진의 기상이 10월의 하늘가에 넘쳐흐른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이며, 백전백승의 위대한 기치로 영원히 우리앞에 높이 빛나 천만년 우리를 향도하시라.
위대한 사상과 성스러운 피를주고, 강대한 오늘과 찬란한 매일이 있는 당이 있어 조선이 누리에 빛나고 사회주의 우리 세상이 영원히 김일성민족의 영광만대에 빛나리라!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리 동 찬, 백 통

당 창건 65돐을 뜻깊게 빛내이는 경사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고속환원법에 의한 주체철생산체제 확립, 철생산의 정상화 실현

【평양 10월 7일 발 조선중앙통신】 조국청사에 특기할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뜻깊은 10월의 격조적인 시기에 북방의 대야금기에서 주체철 승리의 포성이 편이 울리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지난해 12월 현지도하시면서 새해 대고조선군의 강철전사들이 최첨단돌과전을 힘있게 벌려 주체철용광로에서의 제철법을 완전히 성공시킨데 이어 폭스를 전혀 쓰지 않는 고속환원법에 의한 주체철생산체제를 새롭게 확립하고 철생산의 정상화를 실현하였다.

야금공업의 최첨단을 돌파한 비폭스제철법의 편속성공으로 나라의 철강재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김철이 소리치며 전진하고 사회주의자립경제의 기둥인 금속공업은 주체회의의 통장훈을 부르게 되었다.

이 자랑한 성과는 혁명의 준엄한 년대마다 철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해온 충실성의 전통을 이어 당의 강성대국건설업무를 무쇠기둥으로 받들어나갈 김철로동계급의 애국심과 결사관철의 정신력이 낳은 결실이며 당창건 65돐에 드리는 자랑한 선물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금속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기술개진사업을 계속 힘있게 추진하여 주체철에 의한 김철생산체제를 하루 빨리 완성하며 생산을 부쩍 늘여 경제강국건설장전에 더 많은 철강재를 보내 주어야 합니다.》

김철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일찌기 주체

철을 우리 나라 야금공업의 종자로, 자립적민족경제의 생명선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높은 뜻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걸음이 멀쳐나섰다.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 19만 t의 공칭능력을 뛰어넘어 27만 t의 신철생산으로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준 전세대의 투쟁기풍과 창조정신이 온 기업소에 내뿜었다.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 밑에 기업소에서는 여러 과학교육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밑에 자력으로 독특한 주체철용광로를 건설하였다.

지난해 12월에 진행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김책제철련합기업소현지도는 비폭스제철법을 완성하기 위한 대비약의 불길을 지펴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식의 독특한 용광로를 일떠세운 설계가들을 비롯한 건설자들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시고 나아가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으로써 강선의 봉화는 김철의 불길로 이어져 주체철용광로에서의 제철법이 마침내 완전성공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주체철용광로에 이어 고속환원법에 의한 주체철생산체제를 확립하는 특기할 성과를 이룩하였다.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철생산의 비폭스화를 철저히 실현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강철 1직장에 독특한 주체철생산공정을 꾸리기 위한 대담하고 용이 큰 작전을 펼치었다.

구조가 간단하고 원단위소비기준이 훨씬 낮으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주체철생산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좋은 안들이 수없이 나오고 고속환원로와

산소용해로 등 거대한 주체철생산공정을 짧은 기간에 새로 일떠세우기 위한 건설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다.

대보수사업소, 제판2직장, 내화물직장, 축로직장과 보장단위들을 비롯한 기업소의 많은 단위들에서 로기초과기와 건축공사, 방대한 설비제작과 조립 등을 동시에 내밀며 립체전을 벌려 새로운 주체철생산공정을 불과 40여일만에 완공하고 20여일만에 첫 쇠물을 뽑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새로 꾸린 강철 1직장의 주체철생산공정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산소전로 그리고 첨단기술을 받아들여 현대화된 원로식련속조리기와 흐름식공정으로 일체화함으로써 한번 끓인 쇠물로 내쳐 식힘없이 압연강재까지 뽑아내는 전일적인 주체철생산체제를 확립하였다.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강철 1직장의 주체철생산공정과 주체철용광로에 CNC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성과적으로 추진되었다.

우리 나라 원로, 연료의 특성에 맞는 장입제용조종프로그램, 로상태의 예측 및 조종프로그램을 비롯한 수십건의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로의 온도, 압력, 류량 등을 자동적으로 감시조종하는 지명실, 조종실이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주체철생산의 CNC화가 빛나게 실현되었다.

고속환원법에 의한 우리 식의 새로운 비폭스제철법이 완성됨으로써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갈탄을 100% 리용하여 철 생산을 늘일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우리의 주체철생산체제는 재래식제철법에 종지부를 찍고

첨단성을 확고히 달리게 되었다.

주체철용광로와 함께 고속환원법에 의한 새로운 철생산체제가 완전히 성공하여 철생산의 동음을 우렁차게 울리게 된것은 비폭스화와 석탄가스화를 경제발전에서 추호도 양보할수 없는 철칙으로 내세운 당의 주체화로의선인 자랑찬 승리이며 야금공업에서의 일대 혁명이다.

선진적인 주체철생산공정들에서 우리나라의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철을 생산함으로써 대규모 철의 기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가 철강재생산의 물길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축성하고 무섭게 활력을 내뿜을수 있는 전망이 펼쳐졌으며 뜻깊은 올해는 김철이 일어나는 해, 김철이 일하는 해로 더욱 빛나게 되었다.

강선에서 나오는 자력강생의 불길이 김철과 석강, 황철, 보산제철 등 나라의 대규모금속공장들에서 거세차게 타올라 우리의 금속공업은 주체철생산체제에 의한 새로운 발전단계에 확고히 올라섰으며 주체철완성을 위해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영혼이 빛나게 실현되게 되었다.

김철의 자랑인 비폭스제철법의 완성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의 신념과 탁월한 명도가 낳은 창조물이며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재부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불면불휴의 현지도강행군경에서 비폭스제철법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으며 이 길만이 우리의 금속공업이 나아가갈 길이라는 주체회의의 진리를 밝혀주시고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애국열의와 창조정신을 비상히 불려일으켜 주체철승리의 위대한 세시대를 안아오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김철의 강철전사들은 주체철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과 함께 우리 식의 철생산체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선봉에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명도따라 김철의 호소, 김철의 불길에 주체의 정신과 최첨단돌과의 창조기풍으로 화답하는 천만군민은 우리의것으로 세계적인것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승리에서 승리로 더 높이 비약할것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는 시, 군 경축 대회 진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는 경축대회가 시, 군을에서 련일 진행되고있다.

대회장들은 대를 이어 수령부, 당복을 받아안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를 안고 모여온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로 차고넘쳐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대회장들에 모셔져있다.

대회장들에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시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를 비롯한 구호판들이 세워져있다.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일군들,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하였다.

대회들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주체혁명위업, 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를 마련하고 공화국의 앞길을 밝히며 애국적 열의를 불어넣어준 력사적사건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열렬한 호모

와 신뢰의 정을 담아 최대의 영광과 열렬한 축하를 드리었다.

회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장장 반세기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특출한 정치실력과 거창한 혁명실적으로 주체혁명위업을 배운의 한길로 이끄시어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개성시, 개천시, 인천군경축 대회들에서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로 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명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으로써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었으며 사회주의위업의 앞길에는 평평한 미래가 펼쳐지게 되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의 선군령도를 받들고 우리 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위하여 더욱 의세계 싸워나아가야 합니다.》

연설자들은 뜻깊은 올해를 우리 조국력사에서 특기할 대 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

게 일으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 인민소비품생산을 끊임없이 늘리며 당면한 가을 길의와 남알림기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올해수확을 잘 마무리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삼천군, 세포군, 랑림군경축 대회들에서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명도따라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역세계 싸워나갈 철의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은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라고 하면서 그들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명도가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사회주의의 한길로 줄기차게 달려올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받들고 전야마다에 애국과 헌신의 팜방울을 아낌없이 바침으로써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풀고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앞당겨 실현하는데 기여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덕천시, 통천군, 신천군 경축대회들에서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령

제1106호 주체99 (2010)년 10월 4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3중3대혁명붉은기,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3중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한다.

3중3대혁명붉은기 수여대상은 산하발전건설사업소 주체직장, 북창기초식량공장 공무직장, 안주시 청송협동농장 기계화 작업반, 통수관방 운반계 운반중대 선전광산봉사관리소 청년 종합부락, 박천군광정사업소 평북일보사 인쇄공장 신문 종이분공, 신의주시 해방지구종합진료소 재평광산 실업공장 재평수선동조합, 함흥청년회도 상업관리소 평양해운사업소 운수 1직장 평양전공장 평남연속 무역집배 《유정2》호 중앙주의방역소 3대혁명붉은기 혁명관망 평양매주공장 출판지도국 인쇄기계설계 연구소 평양시제2인민병원 두단오리공장 비육 2직장 순안구역 순안협동농장 남새 5작업반 평양시방송위원회 덕성관망 5명 인포관망 1명 남덕관망 10명 제탄 1중대 신립관망 골정계 제탄 1중대 보산관망 5명 제탄 1중대 신창현관망 7명 제탄 2중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자재상사는 산하발전건설사업소 주체직장, 북창기초식량공장 공무직장, 안주시 청송협동농장 기계화 작업반, 통수관방 운반계 운반중대 선전광산봉사관리소 청년 종합부락, 박천군광정사업소 평북일보사 인쇄공장 신문 종이분공, 신의주시 해방지구종합진료소 재평광산 실업공장 재평수선동조합, 함흥청년회도 상업관리소 평양해운사업소 운수 1직장 평양전공장 평남연속 무역집배 《유정2》호 중앙주의방역소 3대혁명붉은기 혁명관망 평양매주공장 출판지도국 인쇄기계설계 연구소 평양시제2인민병원 두단오리공장 비육 2직장 순안구역 순안협동농장 남새 5작업반 평양시방송위원회 덕성관망 5명 인포관망 1명 남덕관망 10명 제탄 1중대 신립관망 골정계 제탄 1중대 보산관망 5명 제탄 1중대 신창현관망 7명 제탄 2중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령

제1108호 주체99 (2010)년 10월 4일

모범적인 학교들에 3중영예의 붉은기, 2중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3중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한다.

3중영예의 붉은기 수여대상은 순천제 1중학교, 피현군 봉북소학교 2중영예의 붉은기 연안군 장문중학교, 금강군 승리중학교 영예의 붉은기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학교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는데 이 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3중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한다.

3중영예의 붉은기 수여대상은 순천제 1중학교, 피현군 봉북소학교 2중영예의 붉은기 연안군 장문중학교, 금강군 승리중학교 영예의 붉은기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학교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는데 이 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3중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한다.



당의 경공업혁명방침 관철에 앞장설 열의로 들끓는 비단실생산전투장 - 김정은평양제사공장에서 - 본사기자 립락 찍음

위대한 수령 김정일주석 탄생 100돐기념 국제준비위원회 결성

1면에서 계속

주석께서 지니신 뜨거운 인간애와 넓은 도량, 비범한 예지와 출중한 지력은 사상과 정경, 국적과 신앙,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매혹시켰다.

세계정치사에 지울수 없는 자욱을 남기신 김정일주석의 탄생 100돐을 인류공동의 대축전으로 맞이하는것은 우리 모두의 마땅한 의무로 된다.

태양이 영원 하듯이 주석께서는 인류와 더불어 영생하실것이다.

나이제리아 전 국회 상원 부의장 이브라힘 만투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주석께서는 조선혁명뿐 아니라 세계자주화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었다.

주석께서 아프리카나라들의 자유와 독립, 번영을 위하여 쌓으신 고귀한 업적은 아프리카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어있을것이며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주석의 혁명사상은 김정일각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김정일각하의 명도밑에 조선은 세계적인 강국으로 우뚝 솟아올랐다.

김정일각하의 로속하고 세련된 명도에 의하여 조선은 김정일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줄것이다.

행사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주석 탄생 100돐기념 국제준비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서 마다브 꾸마르 내발 내팔수 상이, 공동위원장들로 양형성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부위원장, 미안 라자라바니 파키스탄인민당 부총서기, 울라지미르 톨스찌코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화조 로씨야협회 위원장, 앙드레 모리 프랑스로 선선선협회 대표위원장, 에밀리아 베르난데스 브라질국회 하원 의원, 이브라힘 만투 나이제리아 전 국회 상원 부의장, 유세프 아민 왈리 예르트 민족민주당 부위원장, 기 듀프모는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이 선출되었다.

행사에서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으며 피땀바른선언이 발표되었다.

행사는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10월 음악회 설화

오영재, 차영도

(1)

언제부러었던가
이 땅에 사는 누구나 마음속에
위대한 당의 크나큰 그 품을
우리의 집으로 간직한것은

천만자식을 한품에 안아
찬바람 눈비를 가려주고
죽음까지도 다 막아주며
사랑과 믿음으로 보살피려는
정답고 따뜻한 어머니품

뜻을 따르고
정을 나누며 한식술로 사는 품
순간도 떨어져 못사는
우리 장군님의 그 품을
인민은 한목소리로 우리 집이라
부르거니

동란의 광풍으로
사회주의올바자가 넘어질 때
남들은 제 집을 다 버렸어도
우리는 이 집이 없인 못살아
고난의 언덕에서 풀뿌리를 씹으
면서도
운명의 명줄로 불안고 산악같이
일어나
끝까지 생사를 같이했어라

아 세상에 열백번 다시 태어난
대도
그 품에 태어나고싶고
천만번 다시 산대도 그 품에만
안겨살
김정일동지의 당의 품—영원한
우리 집이여!

우러러 부르는 감사의 노래

하늘땅 끝까지 넘쳐나고
목매어 부르는 고마움의 노래
세월의 끝까지 울려여라

(2)

동지!
이 나라 피어린 백두산에서
혁명의 붉은기와 함께 태어난
이 딸!

한번 택한 혁명의 길에
생사를 같이해나신 열혈의 투사들이
한번의 그 불같은 정과 사랑에 목이
매여
심장으로 부른 동지!

이 딸은 우리 장군님의
생의 전부를 대신하는 딸과도

갈거니
장군님의 한생은 정녕
위대한 동지의 세계로 이어진 한생이
아니던가

부르면 금시라도
한달음에 달려올듯만심은 오진우,
허담, 연형목, 심창환...
마치 저 하늘의 못별과도 같이
우리 장군님의 한생에 그처럼 잊지
못할 혁명동지로

영생의 삶을 빛내인 김정일태양계의
위성들이여!

오, 심장을 주고 피를 주고
열과 정을 끝까지 같이하는 동지의
세계!

그것은 이 세상에서
정과 사랑이 가장 가슴에 사무치셨던

우리 장군님께서
불의 심장으로 창조하신 우리 혁명의
새 세계!

그이는 이 위대한 세계속에
천만대오를 억척같이 키워
우리 당과 혁명앞에 엄숙히 정렬
시켰고
이 세상 한끝까지
김일성동지의 당—조선로동당을 백승
에로 이끄시나니

오, 백두의 호심같이 깊고
백두의 뿌리같이 꺾이지 않고
백두의 산악같이 흔들림 없을
우리 당의 동지애의 력사는
이 땅, 이 하늘아래
일심단결의 김정일조선을
우뚝 안아올리었어라!

조선로동당창건 65돐 중앙경축행사대표들 공훈국가합창단공연 관람



조선로동당창건 65돐 중앙경축행사대표들이 7일 인민문화관에서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대정사에 이어 우리 당창건기념일을 뜻깊게 맞이하는 기쁨과 환희가 장내에 차넘치는 가운데 공연은 남성합창 《경애를 받으시라》로 막을 올렸다. 남성합창 《충성의 노래》, 《조선로동당 만세》, 혼성3중창과 남성합창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를 비롯한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로속하고 세련된 형태로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며 선군의 기치높이 나라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부강조국 건설의 전성기를 열어주시는 경에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장구한 투쟁행로를 영웅사시사로 아로새겨온 우리 당의 자랑찬 역사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하는 남성합창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당의 기치따라》, 《조선의 모습》, 남성독창과 합창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여성독창과 남성합창 《어머니당의 품》 등이 연이어 무대에 펼쳐졌다. 어머니당에 대한 다함없는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맞아 전국유치원 어린이들의 예술종합공연

《10월명절 꽃무대》가 7일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되었다. 김영남동지, 양형섭동지, 리태남동지, 김락희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판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서장 《10월명절 꽃무대》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남중창과 북제주 《백두산의 장수로 자라셨지요》, 남녀중창 《원수님 회령에 오시였지요》, 녀중창 《우리 배운 첫 글자, 동화무용 《호랑이를 이긴 고

수도지》를 비롯한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경에하는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끄시는 당의 품속에서 재능을 꽃피우며 씩씩하게 자라는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5중창 《유치원은 엄마품의 품》, 무용 《자랑많은 비날론공방》, 《미복벌의 뚝부기야》, 목금독주 《장자봉의 목금소리》를 비롯한 종목들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승고한 후대판을 지니시고 애국헌신의 길을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경축공연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축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이 7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공연장소에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대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혁명적대정사에 이어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을 맞이하는 청년학생들의 무한한 기쁨과 격정이 뜨겁게 끓어오르고있었다. 합창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혼성중창 《당은 장군님의 품》, 녀성민요독창 《오직 한마음》, 녀성2중창과

방창 《매혹과 흥모》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특출한 정치실력과 비범한 령도풍모를 지니시고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 선군혁명의 강위력한 전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시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어 나라의 존엄과 국력을 만천하에 떨쳐가시는 경에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민족기악3중주와 방창 《조국의 자연을 개조해가세》, 극제대 《알자리》, 중창이야기 《가고싶어 가는 길》 등 종목들에는 당의 부흥이란 천만산악도 때울수 없는 혁명적대고도의 선봉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는 청년들의 끝없는 긍지와 자랑이 넘쳐흐르고있었다. 경에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혁명의 무기, 계급의 무기를 더욱 역세게 틀어잡고 사회주의조국을 철벽으로 지켜갈 선군시대 청년들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선동이야기 《복수자세대의 선인》, 남성3중창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는 관람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총련의 축하단, 대표단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7일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축 제일본조선인총련합선과 강두원장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본부위원장대표단, 리명진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지부위원장대표단, 권경애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일

본조선민주녀성동맹 일군대표단을 비롯한 제일동포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주체형의 혁명적당,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백승으로 이끄시어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으며 총련의 강화발전전을 위하여 온갖 로고를 바치신 경에하는 수령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흥모의 마음

제4차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 중국에서 진행

제4차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가 조선로동당대표자와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중국 훈춘에서 9월 20일과 21일에 진행되었다. 전시회장정면에는 백두산 천지를 형상한 대형전판사진우에 《제4차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라고 쓴 글씨가 새겨져있었다. 활짝 핀 태양의 꽃 김일성화와 불멸의 꽃 김정일화들로 황홀경을 이룬 전시회장은 우리 나라 기발함과 중국기발들이 장식되어있었으며 이 영화들이 세계에박람회와 국제화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훈춘 김일성화김정일화운은실 총경리 양홍준은 이번 전시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 두차례에 걸치는 중국방문을 통하여 중조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강화발전시키신 뜻깊은 해에 열리는것으로 하여 더욱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는 세계 자주위업수행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끝없는 흥모심에 떠날들려 이 세상에 태어난 위인칭송의 꽃들이라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언급하고 이번 전시회가 두 나라사이의 영원한 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연설자들은 한결같이 불멸의 꽃 김일성화와 김정일화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반향은 날을 따라 커가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인류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의를 표시이라고 말하였다. 참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 보면서 중국과 조선은 한전호에서 어깨걸고 싸우는 가장 친선적인 림방이다,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는 영원불멸할것이다고 격동된 심정을 피력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중항일혁명투사,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가족들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7일 조선로동당창건 65돐 경축행사에 참가할 재중항일혁명투사 서순욱가족,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인 김순욱, 리판림가족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통성변

제4차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 중국에서 진행

제4차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가 조선로동당대표자와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중국 훈춘에서 9월 20일과 21일에 진행되었다. 전시회장정면에는 백두산 천지를 형상한 대형전판사진우에 《제4차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라고 쓴 글씨가 새겨져있었다. 활짝 핀 태양의 꽃 김일성화와 불멸의 꽃 김정일화들로 황홀경을 이룬 전시회장은 우리 나라 기발함과 중국기발들이 장식되어있었으며 이 영화들이 세계에박람회와 국제화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훈춘 김일성화김정일화운은실 총경리 양홍준은 이번 전시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 두차례에 걸치는 중국방문을 통하여 중조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강화발전시키신 뜻깊은 해에 열리는것으로 하여 더욱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는 세계 자주위업수행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끝없는 흥모심에 떠날들려 이 세상에 태어난 위인칭송의 꽃들이라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언급하고 이번 전시회가 두 나라사이의 영원한 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연설자들은 한결같이 불멸의 꽃 김일성화와 김정일화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반향은 날을 따라 커가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인류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의를 표시이라고 말하였다. 참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 보면서 중국과 조선은 한전호에서 어깨걸고 싸우는 가장 친선적인 림방이다,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는 영원불멸할것이다고 격동된 심정을 피력하였다.

요르단에 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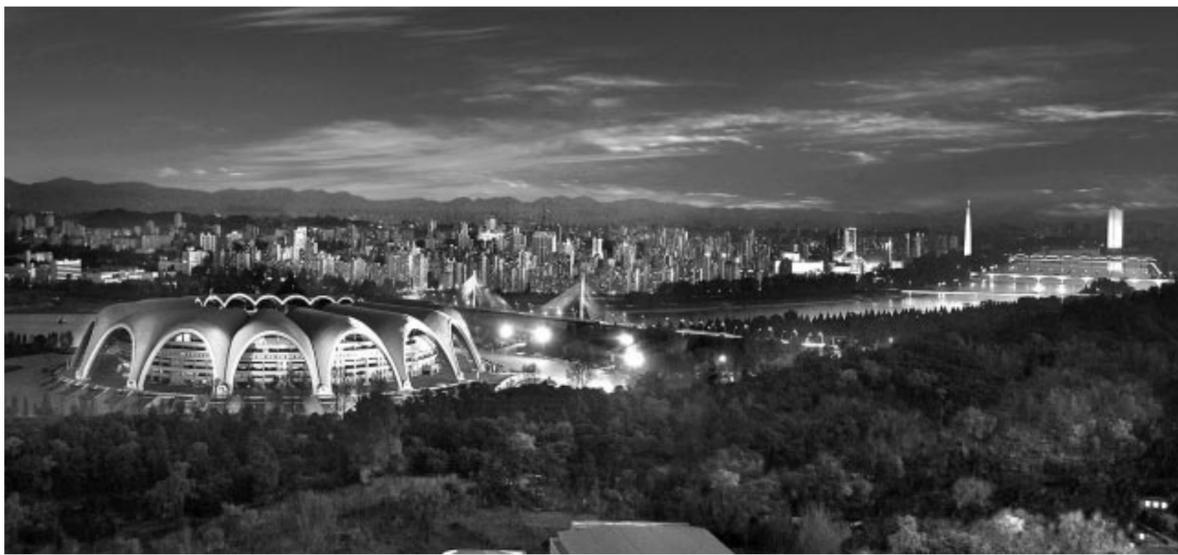
요르단에서 진행되는 제7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적십자대회에 참가할 백용호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대표단이 7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판계부문 일군과 우리 나라에서 사업하고

있는 적십자 및 적면월회 국제련맹대표단 단장이 전송하였다. 7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판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쿠바공화국, 브라질련방공화국의 외교대표들이 대표단을 마중하였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을 방문하였던 외무성대표단 귀국

김형준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외무성대표단이 쿠바와 단마르크를 방문하였던 문제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친선대표단이 7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7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판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쿠바공화국, 브라질련방공화국의 외교대표들이 대표단을 마중하였다.



위황찬관람 강성대국의 래일을 그려보며 잠 못 드는 수도의 밤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민족의 대경사

지금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천만군민의 가슴들은 격정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조선로동당 대표자 회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로 다시 높이 모신 것은 온 세상에 소리를 지르듯 해야 할 민족사적인 대경사이다. 어찌 그렇지 않랴.

백두의 천출명장이시며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대한 령도자로 받들어모시고 혁명하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받아안은 최상의 행운, 최대의 경사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것으로 하여 우리 당과 혁명의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과 민족번영을 위한 결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하기에 지금 온 나라 인민은 한없는 기쁨과 열화같은 충성을 다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고있는것이다.

남녘겨레들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조선로동당대표자 회소식에 접하여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그들은 지금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경건히 우러르면서 절세의 위인을 모시고 사는 더없는 민족적금지과

자부심을 한껏 느끼고있다. 지금 우리의 귀재에는 13년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소식을 받아안고 남녘겨레들이 터치던 격정의 환희성이 다시금 들려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총비서로 추대되시었다. 이런 영광, 이런 긍지, 이런 행복이 어디 또 있었는가.》

《만민의 호모를 받고계시는 김정일 장군님을 민족의 최고 명도자로, 당 총비서로 높이 모시었으니 우리 민족이 아말로 대행운, 대풍운을 안은 긍지높은 민족이라고 온 세상에 자랑할수 있다.》

《오늘 우리 겨레가 세상에 대고 긍지높이 자랑하는것은 바로 대를 이어 누리는 위인부, 령수부이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자이신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

...
 경애하는 장군님의 총비서 추대소식이 전해지자 서울대학 교에서는 그들의 조상사전을 중추로 모시고 축하의 인사를 올리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다른 여러 대학에서도 《김일성민족의 최상최대의 영광》, 《하늘을 직접간다. 민족의 대경사》라는 벽보들이 나붙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는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 만세!》라는

인쇄물이 뿌려져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남조선의 한 사회과학자는 《위대한 김정일령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시었다는 소식에 접한 남녘땅은 정말 환희로 들끓었다. 남녘의 이 환희는 로속하고 세련된 정치원로이시며 심원한 사상리론왕과 현명한 령도, 인민을 한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숭고한 덕담으로 조국과 민족을 온 누리에 빛내이고계시는 김정일령수님에 대한 열렬한 충성의 화폭이며 그이께 드리는 축하의 인사였다.》고 자기의 격정을 터치었다.

다른 한 정치평론가는 자기의 글에서 《김정일령수님은 려사가 선출하고 만민이 추대하고 시대가 받아들여온 인류의 태양이다. 이런 위대한분을 모신것은 5천년민족사의 긍지를 다 합친다 해도 대비할수 없는 민족의 대경사, 겨레의 대행운이다.》라고 썼다.

태양회의 한 모임에서 회장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10월 8일은 그이의 탄생일인 2월 16일과 더불어 민족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영광의 날이다.》라고 긍지높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받들어모신 크나큰 행운, 령도자복에 겨워 러친 남녘의 민심은 이처럼 순결하

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남녘겨레의 호모와 칭송의 목소리들은 실제를 통해 그이의 위대한 령도력과 비범한 품모에 애추된 심장들의 격정의 토로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을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에 제국주의련합세력의 포위압살공세를 격파하고 세계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과의 계속되는 정치군사적대결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할수 있었다.

민족분열의 장벽에 파열구를 내고 우리 민족끼리의 숭고한 리념에 기초한 6.15 통일시대가 펼쳐진것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정쟁 반만년의 유구한 우리 민족사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펼쳐지는 오늘날처럼 우리 나라가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고 김일성민족의 기상과 영예가 만방에 펼쳐진 때는 일찌기 없었다.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실생활행위를 통하여 이 모든것을 절감하는 남녘겨레들이기에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호모의 정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는 것이다.

그러한 민심을 담아 남녘겨레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호모의

마음을 터치고있다.

서울에서 통일애국동지회의 주최로 열린 축하모임에서도 흥분과 격정어린 목소리들이 그칠줄 몰랐다.

모임에서 통일애국동지회 회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령도자님은 풍파사나운 20세기 후반기로부터 지금까지 빛나는 혁명명도사를 기록하시며 민족자주위업을 승려적으로 이끌어오신 민족의 절충한 령수이시며 최세의 위인이시다. 세계정치를 둘러보아도 그토록 오랜 기간 자주정치의 사람됨에 서서여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로 한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성공적으로 개척한 명도자도 없었다.》

김정일령도자님은 정치철학에서도 제일이시고 담력과 지략에서도 으뜸이시며 령도와 당에서도 으뜸이시다. 령도자로서의 천품과 자질을 완벽히 갖추신 그이를 자주위업을 향도하는 조선로동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겨레의 최상최대의 행운이며 특건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명도자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것은 영광과 행복을 가슴에 새겨온 남녘인민들은 또다시 그 격정, 그 환희에 북받치는 마음을 안고 민족의 위창한 앞날, 통일되고 강성번영하는 조국의 미래를 막판히 그려보고있다.

본사기자 북은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기다

언제나 《조선로동당과 그 승리의 비결》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연단에 오른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의해 창건된 조선로동당이 자기의 주체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면서 창건자의 존함으로 빛나고있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명도자님에 의해 령도의 위업이 꽃피어 이어지고있기때문이다.》라고 자기의 격정을 터치었다. 이어 한 언론인은 《세상에 많은 당들이 있지만 이북의 조선로동당처럼 근로민중의 신뢰와 신망을 받고있는 당은 없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믿음과 사랑의 인격정치를 실현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은 어머니당으로 이북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있다.》

바로 그래서 사상사람들이 조선로동당을 가리켜 가장 위대한 불배의 당이라고 칭송하고있는것이다.》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열 번 토론들이 계속되었다.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이 백전백승하고 강유력한 당으로 위력을 떨치고있는것은 바로 당의 수위에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있기때문이라고 찬란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자는 토론회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명도자로 모시고 그의 령도 따라 전진하는 여기에 조선로동당의 위대성이 있고 필승불패의 원력이 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모두가 열화와 같은 박수로 화답하였다.

부산의 한 회사원이 공화국 북반부를 방문한적이 있는 동료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였다. 그와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인민이 당의 품을 어머니 품이라고 부르며 따르는것을 알게 된 회사원의 충격은 컸다.

인민들의 생활과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권력다툼과 세력확장, 당파의 이익을 위해 피눈이 되어 들어가는 부패정치인들만을 보아온 그에게 있어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회한된 것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은 감명을 받은것은 이북민중 누구나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 그 품을 어머니 품이라고 부르며 살고있는것이다. 참으로 놀라웠다. 조선로동당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김정일명도자님께서는 당정책작성에서 민중의 복리후생을 철저히 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사기자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조선통일방안

핀란드인사담화 발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제시 30돐에 즈음하여 핀란드조선학회 위원장 안마 씨가 9월 30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머지않아 김일성주석께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신 30돐을 맞이하게 된다.

핀란드조선학회는 이날을 맞으며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재확인 하면서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굳은 연대성을 보인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지금으로부터 30년전인 1980년 10월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대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들이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나라를 통일할데 대한 방안을 제시하시었다.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통일방안은 려사적의의를 가지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의연히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통일방안으로 되고있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에 쌓으신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오늘 존경하는 김정일총비서에서 의하여 더욱 빛나고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자면 무엇보다먼저 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치

군사적간섭을 완전히 끝장내고 리명박《정권》이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대결정책을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학회는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자기의 군대를 하루빨리 철수할것과 리명박《정권》이 반공화국대결정책을 버리고 자주적평화통일을 바라는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요구를 받아들일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따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룩하리라고 굳게 확신한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조선인민의 자주적평화통일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 것이며 그들의 반대성활동을 더욱 광범히 벌려나갈것이다.

최근 북남사이의 적실자신도 주의분야에서의 일련의 접촉들로 하여 악화된 북남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나타나자 바빠있는 남조선의 대결판사자들은 그에 응으로, 양으로 제동을 걸고있다. 그들은 지금 핵문제 해결을 북남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계속 내걸면서 문제해결을 방해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통일부 장관 현인택은 그 무슨 《속사》라는데서 《북이 국제사회에 대해 비핵화를 향한 의지와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그것이 없이는 북남관계개선에 나설수 없다는 자세를 취하였다. 그보다 앞서 서울에서 열린 《반핵화협력 범국민회의》와 관련한 행사에서도 《북이 비핵화와 개혁, 개방을 위한 길을 선택할 때》라느니 뭐니 하고 수작질하였다. 한편 현인택은 지난 9월 24일 연료단체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가 우선시되어야 북과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현인택의 언행들은 우리를 《선해제기》와 《개혁, 개방》에 무도하여 무장해제기 시제로 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인 대결정책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화해와 협력의 길에 가로놓인 암초

다는것을 말해준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당국이 북이 받아들이지 않는 《선해제기》를 계속 들고나오는것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좋은 기회를 포기하고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그러나 북이 《선해제기》를 받아들일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얼마전 남조선통일부 장관 현인택은 그 무슨 《속사》라는데서 《북이 국제사회에 대해 비핵화를 향한 의지와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그것이 없이는 북남관계개선에 나설수 없다는 자세를 취하였다. 그보다 앞서 서울에서 열린 《반핵화협력 범국민회의》와 관련한 행사에서도 《북이 비핵화와 개혁, 개방을 위한 길을 선택할 때》라느니 뭐니 하고 수작질하였다. 한편 현인택은 지난 9월 24일 연료단체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가 우선시되어야 북과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현인택의 언행들은 우리를 《선해제기》와 《개혁, 개방》에 무도하여 무장해제기 시제로 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인 대결정책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나라의 최고리익을 지키고 조국과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핵문제해결을 유지할수 없게 되었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적정책을 포기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면 핵문제 해결의 길은 저절로 열리게 되었다.

남조선전선세력이 핵문제해결을 북남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것은 사실상 북남관계개선을 대결에 돌리세우기 위한 한갖 수작이다.

실제로 핵문제해결과 북남관계개선을 직접 련관시킨 남조선당국의 반통일적인 《비핵, 개방, 3000》정책에 의해 6.15이후 총체적으로 북남관계는 여지없이 파괴되고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은 극도로 심화되었다. 오히려 의제와 함께 《선해제기》를 집요하게 떠벌어던 보수파들의 망동에 의해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는 더욱 격화되고 북침전쟁위험은 극도로 고조되었다. 이것은 북남관계의 개선과 핵문제를 서로 련결시킬 경우 북남관계는 돌이킬수 없는 파국에 처하게 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도 가실수 없다는것

을 입증해주고있다.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자들이 아직까지 실재한 《비핵, 개방, 3000》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북의 《선해제기》를 운운하는것은 그들이 북남관계개선을 아니라 대결과 전쟁을 획책하고있는것을 스스로 폭로하는것으로 된다.

현인택역도 말하면 《비핵, 개방, 3000》의 고안자이며 동족에 대한 적대감과 대결광풍이 갈수록 짙어지는것을 위해서도 현인택을 비롯한 북남관계파의 장본인들을 모두 교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은 당연하다.

남조선당국이 낡은 대결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남관계에서 그 어떤 새로운것을 기어코 실현해보려고 발광하고있다.

핵문제를 구실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현인택의 망동은 민족의 근본리익을 해치고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반대하는 용납 못할 반역행위로써 남조선 전체의 커다란 분노와 항의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사기자 김향미

평화통일 실현을

남조선의 단군학회를 비롯한 민족운동단체들이 3일 서울 종로구의 사직공원에서 개최된 기념행사를 가지었다.

발언자들은 단군기에 반만년의 유구한 려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단일민족의 긍지를 안고 살아온 우리 민족은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분열과 대결을 끝장내고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남과 북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고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이 날로 첨예해지는 오늘날의 엄중한 사내는 민족의 대단합과 협력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그들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을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선언문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하

주장

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언문은 각계각층이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행투를 적극 벌려나가며 우리 민족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 전쟁도발정책을 단호히 반대배격하고 민족의 안녕과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평화실현, 반전투쟁 확대를 다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가 10.4선언발표 30돐에 즈음하여 4일 조선반도평화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은 10.4선언이 발표된지 30년이 되었지만 호전파들의 계속되는 북침전쟁행동으로 하여 조선반도는 언제 전쟁

이 터질지 모를 상태에 놓여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하고 평화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선언은 주장하였다.

선언은 당국이 《천안》호침몰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금강

산관폐계를 비롯한 남북협력 사업에 적극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10.4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널리 소개선전하는 운동을 활발히 벌려서 선언의 실현을 위하여 북민민중들로부터 확대해나갈것이라고 선언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새 전쟁노발 열풍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긴장완화의 흐름을 외면하면서 북침전쟁도발을 위한 공모격략을 강화하고있다.

지난 9월 12일 미태평양함대사령관과 피피해군참모총장사이에서 남조선장점 미해군사령부 부상을 일으키는 문제 등을 놓고 또 한차례의 모의란이 벌어졌다.

최근 남조선호전파들이 합선침몰사건을 구실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소동을 강화하고있는 데에 상응하고 함께 미해군사령부이전문제를 론의한것은 무척히 스쳐지날 일이 아니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새로운 전쟁전략에 따라 남조선강점 미군을 육군 위주로부터 해군과 공군위주로 개편하는 놀음을 벌리고있는것은 이미 폭로된 사실이다. 그 현실적움직임은 서울 통산에 있는 남조선강점 미해군사령부를 부산으로 옮기기 위한 의도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남조선강점 미해군사령부의 위치를 부산으로 정한것은 그것이 북침전쟁전략실현의 중요한 거점으로 되기때문이다. 미국은 북침전쟁전략에 따라 사세보강을 비롯한 일본의 여러 항구들을 미

해군의 기지로 정하고 미태평양함대소속 해상무력을 일의 시각에 조선반도로 출동시킬수 있도록 대기시켜놓고있다. 부산은 미해군의 주요기지인 사세보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있다. 바로 그런것이다. 그리고 호전파들은 부산을 조선반도 《유사시》 미중원무력을 신속히 투입, 전개할수 있는 교두보로 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폭로한데 의하면 미국은 조선반도 《유사시》 해상으로 수송되는 미군의 장비와 물자의 90%를 부산항을 통해 전방으로 이송전시키려하고있다. 이를 위해 미제침략군은 837수송대대를 부산에 주둔시켜 놓고 포항, 진해, 목포, 광양항을 그와 련결하는 범참기지로 리용하고있다.

미국은 부산을 범참기지로뿐 아니라 공격출발지로 써먹으려 하고있다. 지난해 3월 미제3함대소속 핵항공모함 《스태니스》호가 부산에 기항한것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키리호프》, 《독수리》, 《울지 프리더 가디언》을 비롯한 함동군사연습참가자를 구실로 기여들렸던 미 해군의 《블루릿지》, 《키리호프》, 《니미즈》, 《오하이오》 등 항공모함, 전락핵잠수함을 비롯한 각종 함선들이 이곳을 거쳐 혼련수역으로 출발하곤 하였다.

올해 7월에도 호전파들은 미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부산에 끌어들이며 이어 조선통해서 사상 최대규모의 련합해상훈련에 투입하였다.

미국은 이처럼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남조선강점 미해

군사령부를 들어앉았으로써 북침공격작전지휘를 보다 일관히 진행하려고 타산하고있다. 그에 대해 남조선인민이 《전략적우연성에 따른 미군의 범참가능강화대구, 부산지역 미군기지제편의 중심축이 되고있다.》고 폭로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를 통해 남조선강점 미해군사령부의 부산 이전놀음에 매우 위험한 복잡기미가 깔려있다는것을 짐작할수 있다.

더욱이 문제는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도발적인 북침전쟁행동에 적극 가담하여 그 실연의 돌격대로 나서고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함께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더욱 강화할 목적으로 부산에 있는 피피해군기지까지 미제침략군에서슴없이 내주었을뿐 아니라 부산항과 그 주변해역에서 미국과 함께 우리 공화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망상상무기확산 방지지구상》이란 핵 해상차단, 핵선색련을 벌릴것을 획책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미해군사령부의 부산이전을 모의한것은 그곳에 있는 피피해군작전사령부와의 련계를 보다 밀접히 하고 침략전쟁준비를 더욱 박차게 가하려는 속셈의 발로인것이다.

보다싶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대화와 평화에 대한 내외의 혼란한결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면서 북침전쟁도발소동의 강화를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계속 격화시키고자 한다.

본사기자 박철준

전쟁연습과 평화는 랑립될수 없다

최근 미국과 야합한 남조선호전파들의 북침전쟁책동이 날로 강화되고있다.

호전파들은 지난 7월 조선통해상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련합해상훈련을 강행한데 이어 《울지 프리더 가디언》함동군사연습을 발발적으로 벌림으로써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었다.

얼마전에도 남조선호전파들은 미국과 함께 조선서해에서 북침을 가한 도발적인 련합해상훈련을 강행하였다.

날과 달을 이어가며 끊임없이 벌어지는 침략전쟁연습으로 하여 지금 정세는 전쟁경계로 치닫하고있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나라의 통일위업이 엄중한 위험을 당하고있다.

더욱이 이번 불량단소동이 지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벌여져온 북침전쟁연습의 연장이라는데 무시할수 없는 도발적 성격이 있다.

내외호전파들은 지난 7월 《외교부장관회담》이라는것을 빌려놓고 언발각각 각종 전쟁연습을 연이어 벌림을 도모하고있다.

그에 따라 조선통해에서 진행된 련합해상훈련에서는 《미대하는 군사기지》로 불리우는 미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와 최신훈련함 《조지 워싱턴》호를 비롯하여 미군함정 326-5428, 당령사교함정 326-5528, 당령함정 331-4528, 사취중의교함정 321-35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신피로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호와 최신훈련함 《F-22A》를 비롯하여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해한 무력이 동원된 가운데 해상과 공중, 수중에서 우리 공화국을 불에 기습선제공격하기 위한 실동연습이 광범적으로 벌어졌다.

뒤이어 호전파들은 행정기관들과 민간단체들이 동원하여 대규모적인 《울지 프리더 가디언》연습을 미친듯이 강행하였다.

지금 남조선에서 북침을 가한 전쟁연습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는것은 전제없는 엄중한 사태이다. 려사는 끊임없는 무장도발이 전쟁의 전주곡임을 보여주고있다.

호전파들이 저들의 불량단소동에 《방어》니, 《도발적》이니 하는 보자기들을 씌우고있지만 그것으로 지나가나 북침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는 전쟁범죄자들로서 저들의 전쟁적행위를 가리키지 않는다.

남조선에서의 북침전쟁연습 행동은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위업을 해치는 반통일범죄행위이다.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함께 벌리는 모든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이 무조건 중지되어야 한다. 전쟁연습과 평화통일은 결코 랑립될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평화통일을 강력히 호소한다. 북과 남의 우리 겨레는 반만년동안 한강토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서로 닮고 불신과 대결의 감정을 앞세우며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의 소성을 계속 떠친다면 언제라도 평화와 평화통일을 실현할수 없다. 더욱이 북남관계가 최악의 위기에 처하고있고 전쟁의 위기가 극도로 고조되고있는것을 무장도발이 전쟁의 전주곡임을 보여주고있다.

호전파들이 저들의 불량단소동에 《방어》니, 《도발적》이니 하는 보자기들을 씌우고있지만 그것으로 지나가나 북침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는 전쟁범죄자들로서 저들의 전쟁적행위를 가리키지 않는다.

남조선에서의 북침전쟁연습 행동은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위업을 해치는 반통일범죄행위이다.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함께 벌리는 모든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이 무조건 중지되어야 한다. 전쟁연습과 평화통일은 결코 랑립될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평화통일을 강력히 호소한다. 북과 남의 우리 겨레는 반만년동안 한강토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서로 닮고 불신과 대결의 감정을 앞세우며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의 소성을 계속 떠친다면 언제라도 평화와 평화통일을 실현할수 없다. 더욱이 북남관계가 최악의 위기에 처하고있고 전쟁의 위기가 극도로 고조되고있는것을 무장도발이 전쟁의 전주곡임을 보여주고있다.

호전파들이 저들의 불량단소동에 《방어》니, 《도발적》이니 하는 보자기들을 씌우고있지만 그것으로 지나가나 북침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는 전쟁범죄자들로서 저들의 전쟁적행위를 가리키지 않는다.

남조선에서의 북침전쟁연습 행동은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위업을 해치는 반통일범죄행위이다.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조선당국이 외세와